

허탈한 단일화... 대선 차·文 대결로

안철수 사퇴, 박근혜·문재인 후보등록 진검 승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18대 대선 구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두 후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등록을 마쳤다. <관련기사 3-4면>
박 후보 캠프의 서병수 선대위 당무조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박 후보를 대리해 대선 후보등록을 했다. 또 문 후보 캠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도 이날 오후 문 후보를 대신해 후보 등록을 했다. 후보들은 오는 27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8일까지 총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문 후보는 특히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26일 충청지역에 이어 광주를 방문,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후보등록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모든 국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오늘로 15년 동안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눠

왔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문 후보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가 갈망한 새 정치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며 "그 힘으로 정권교체와 새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선거를 '과거세력과 미래세력',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 '귀족후보와 서민후보'의 대결로

규정한 뒤 "재벌과 특권층을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복지와 민생을 지키는 세력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오후 무소속 안 후보는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제가 후보직을 내려 놓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이제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다"며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 저를 꾸짖어주시고 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러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각각 여의도 당사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안철수 사퇴후 광주·전남·전북 1500명 여론조사

조사결과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 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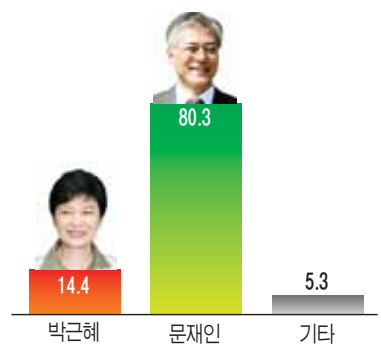
호남 안지지층 90% 이상 文으로

양자대결 지지율 文 80.3% 박14.4%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사퇴 직후, 호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일보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후보 단일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이번 대선 구도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데 따라, 호남 지역의 투표율, 지지율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 직후,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에 의뢰, 24일 광주·전남·전북지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78.2%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지난 주(16~17일)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가 41.4%, 안 후보가 39.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 이후,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90% 이상이 문 후보 지지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14%의 지지율을 기록, 지난 주 여론조사 결과(13.9%)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단단함을 보였다. 강지원 무소속 후보는 1.2%,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0.7%,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0.3%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문 후보가 80.3%, 박 후보는 1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비교하면 문 후보가 6.0%포인트 상승했고, 박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했다.
18대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후보'라는 응답이 76%, '박근혜 후보'는 18.1%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실시한 후보단일화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46.6%,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37.0%로, 긍정적인 반응이 83.6%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0.4%,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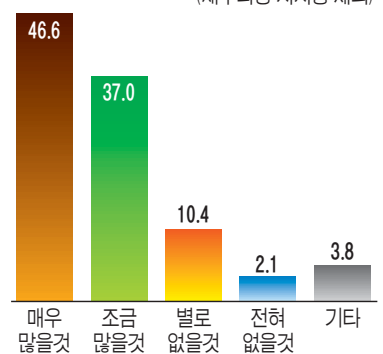
■ 제18대 대선 양자대결



2.1%로 집계됐다.

18대 대선에서의 투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응답이 85.1%로 나타났고, '그때 가봐야'라는 응답이 9.9%, '투표를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5.0%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71.9%, 새누리당이 9.9%, 통합진보당 1.4%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주 조사에 비해 13.1% 포인트 상승한 반면, 새누리당은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후보단일화 효과 전망 (새누리당 지지층 제외)



대선 선거인수 4052만명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4052만 67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3765만3518명에 견줘 7.6% (287만3249명)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남성이 2001만4230명, 여성 2051만253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9만8307명 많았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의 센트럴파크'로 개발

시민참여 공모전... '국가공원' 지정 추진

광주시는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294만1000㎡)을 '도심 속 오아시스'로 불리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시민주도형으로 개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조경학회와 공동으로 26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중앙공원 기본구상 공모전'을

품을 대상으로 최종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는 시민주도형 개발원칙에 따라 시민심사위원 100명이 참여해 1명당 1개 작품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최종작을 토대로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중앙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다.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만들게 된 이유는 지난 2010년 7월 지역민 2460명이 40여 년이 다된 공원 조성계획의 문제점을 들어 재수립을 요청했고, 이를 광주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다만 자체 예산으로는 중앙공원의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가 직접 조성·관리하는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중이며, 현

■ 광주중앙공원 위치도



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원 조성 관련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광주시 김동수 공원조성 담당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중앙공원의 공원규제도 풀리게 됨에 따라 이전에 공원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은 어렵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토대로 시민 휴식처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가군)
■원서접수 12.21(금)~26(수)
'2013' 대학원 일반전형
■원서접수 11.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r-golf.com

록펠러 멀티 회원권

- 1,680만원(멀티회원권), 3,360만원(프리미엄 멀티회원권) 회원 모집
- 보증금 예치기관 : 동양생명
- 동양생명 질권설정으로 입회보증금 안정성 확보
- 호남최초 부킹사이트 개설(VIP회원대우, 회원간 동호회 운영)

록펠러 멀티회원 혜택

- 기명 1인 입회
-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주말 및 공휴일 1회 포함), 그린피 30% 지원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20% 지원)
- 골프장 할인 행사시 할인된 금액에서 그린피 20% 추가 지원

록펠러 프리미엄 멀티회원 혜택

- 기명 1인 입회
-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주말 및 공휴일 1회 포함), 그린피 50% 지원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30% 지원)
- 골프장 할인 행사시 할인된 금액에서 그린피 30% 추가 지원

제휴 골프장
골드레이크 C.C, 아크로 C.C, 푸른솔 G.C, 화순 C.C(구, 클럽900 C.C)

부가 혜택 사항

- 광장골프존, 리얼스 크린골프존, 지아인드 골프존, 러스 크린 골프장별 매월 5회 그린피 30% 할인
- 클리데이 인 광주 호텔 회원우대 특별할인(게스텐드호텔 기준)
- 세계로 한방 병원 골프전문 물리, 한방진료, 입원 의료 혜택
- 미담 한의원 피부이음, 다이어트프로그램, 의료혜택
- 중소기업, 발의원 VIP 재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 통합부킹 사이트 전화원 대우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
멀티 회원권 문의 062)351-0095

동양생명 GA사업단
동양생명 보험문의 062)514-2842